

남성 칼럼

90. 7. 20

‘가위 · 바위 · 보’를 합시다

김봉환/교사 · 관악구 신림8동 16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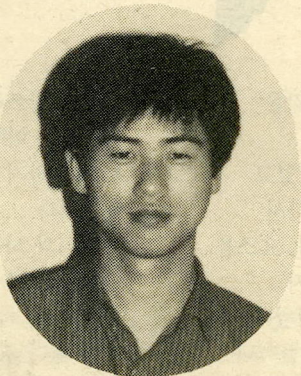
늦게 퇴근한 아내가 저녁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줄곧 TV뉴스를 보고 있었다. 얼마 후 밥상이 들어왔고 나는 TV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승냥을 청했고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다. 밥상이 물러지고 내가 TV에서 눈을 떼었을 때는 설거지까지 마친 아내가 방바닥에 벌렁 누워 멍하니 천정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요와 침묵…….

오랜 연애시절을 거친 결혼이라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 수 있던 나로선 ‘아차’하는 후회와 함께 곧 쏟아질 것 같은 속사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슬며시 말을 건넸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아니나 다를까 “뭐 무슨 일이냐고?” 형, 누구는 TV 뉴스 안 보고 싶은 줄 알아. 누구는 고상하게 세상 돌아가는 구경하고 누구는 일만 하고. 어디 수준 차이냐서 같이 살겠어. 안 그래?”

나는 내심 ‘연애할 때는 말도



잘 못하더니 결혼하더니 말만 늘어서……”하는 생각을 뒤로한 채 뭐라 변명할 여지없는 상황에 그저 머릿만 굴적굴적, 어울리지도 않는 눈웃음만 싱긋싱긋, 참 선배로서, 남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다.

다음날 나는 술선해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며 설레발을 떨었지만 누구보다도 진보적이라며, 못 남성들에게 여성문제 설교(?)를 서슴치 않던 나도 어느새 남성우위의 사회구조에 물들고 있다란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 없었다. 편하고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사실은 얼마나 게을렀는지…….

그후 우리는 ‘우리의 문제(서로의 성(性)에 익숙해지는)’를 진지하게 의논한 다음 재미있는 방법 하나를 생각해 냈다. 사회생활을 하는 내용이나 시간은 서로 비슷하니까 집에서의 가사노동은 동등하게 분담하되 매번 가위, 바위, 보를 해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슈퍼에 갔다오는 것부터 빨래 너는 일까지, 이긴 사람이 선택한다라는 전제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한 것이다. 이 원칙은 손님(?)에게도 적용,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도 여지없이 가위, 바위, 보에 의해 식사준비나 설거지, 방청소 등의 역할분담을 했다.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던 손님들이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대개는 ‘부담없어(가위, 바위 보만 잘하면 더욱 그렇다) 좋다’는 말들을 하며 좋아했다.

한동안 우리집에서는 가위, 바위, 보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사회의 온전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우리 서로가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그날까지는.